

# 메가아시아 관점에서 다문화공간 재사유하기

김해시 외국인거리를 사례로\*

정현주\*\*  
고일홍\*\*\*  
심우진\*\*\*\*  
김정섭\*\*\*\*\*

**초록** 본 논문은 이주민들에 의한 탈영토적인 모빌리티와 다양성이 공존하는 공간을 이해하는 분석적 도구로서 '메가아시아'와 '다문화공간' 개념을 접목하여 양 개념의 이론적, 경험적 확장을 탐색했다. 지역별 영역주의의 함정을 극복하고 탈식민적 맥락에서 네트워크와 관계를 통해 아시아를 확장적으로 이해하려는 개념인 메가아시아는 거시적 접근의 성과에 비해 미시적 구성에 대한 연구가 그동안 간과되었다. 초국가적 이주와 다문화적 정착을 공간적 접근을 통해 설명하려는 다문화공간은 '한국 속의 메가아시아'를 포착하는 개념으로서 유용성을 지닌다. 김해시 외국인거리를 사례로 이 공간의 다중스케일적 구성과 다양성의 공존을 살펴봄으로써 본 논문은 다문화공간의 생산과 작동방식에 대한 이론적 분석을 제시했다. 다문화공간은 지구적 과정이 로컬의 특수한 역사성 및 장소성과 결합하면서 창발적으로 생성되며 이는 김해시 외국인거리의 발전경로와 구성을 통해 잘 드러난다. 이러한 다문화공간은 이종 간의 일상적 마주침을 매개하면서 다양성의 공존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다문화적 전환의 기로에 선 한국 사회에 큰 시사점을 제시한다.

**주제어** 다문화공간, 메가아시아, 김해, 이주, 다중스케일적 접근, 차이의 공존

\* 이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0S1A6A3A02065553).

\*\*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부교수, 제1저자

\*\*\*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HK 조교수, 교신저자

\*\*\*\*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HK 연구교수, 공동저자

\*\*\*\*\*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과정, 공동저자

## 1. 이주의 시대와 메가아시아

이주 연구에서 ‘아시아’는 핵심 연구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다. 인류의 출현과 함께 시작된 지난한 이주의 역사<sup>1</sup>는 지구적 자본주의 시장 통합 이후 저개발 지역에서 잘 사는 지역으로 향하는 흐름을 공통적으로 보여왔다. 20세기 이후 국제이주에서 최대 노동력 송출지 역할을 해 온 아시아는 이주민 배출 규모로 인해 항상 이주 연구에서 주목을 받아왔지만, 최근에는 새로운 현상이 아시아를 중심으로 감지되고 있다. 과거 아시아에서 북미와 유럽으로 향하던 지배적인 이주 패턴이 최근 아시아에서 아시아로의 이주 증가와 함께 복잡한 양상으로 변모하고 있다.<sup>2</sup>

이처럼 아시아는 주요 이주 송출지이자 수용지로서 이중적인 역할을 하면서 국제이주에서 구심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아시아를 둘러싼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숫자의 증가뿐만 아니라 이주 패턴, 원인, 이주민 사회통합, 이주 거버넌스 등 국제이주의 모든 측면에서 기존의 이슈와 차별화된 연구 주제, 새로운 관점에 대한 요구를 발생시키고 있다. 즉 국제이주의 핵심 현장이자 기제로서 새로운 ‘아시아적’ 관점에 대한 개발 필요성이 최근 국제이주연구에서 제기되고 있다.<sup>3</sup> 본 연구는 이러한 아시아적 관점, 아시아를 통한 국제이주에 대한 이해의 증진을 위하여 최근 아시아 연구 및 국제이주 연구에서 제안된 개념들을 검토·접목한 다음, 한국의 사례를 통해 해당 개념들의 이론적 확장 가능성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오늘날 아시아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제안하는 담론 중 하나가 ‘메가

1 샘 밀러 저(2023), 최정숙 역, 『이주하는 인류』, 서울: 미래의 창.

2 2021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배출한 8,260만 명의 이민자 중 3,400만 명 이상이 역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함으로써 절반 가까이가 아시아-아시아 이주 패턴을 보임[IOM (2022), *Asia-Pacific Migration Data Report*].

3 Yuk Wah Chan (2020), “Asian perspectives of migration: a commentary”, *Comparative Migration Studies* 8(33), p. 4.

아시아’ 연구이다.<sup>4</sup> 아시아 지역학 연구의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 고안된 ‘메가아시아’는 아시아의 다양성과 해당 지역 간의 직·간접적 연결성에 주목하고 이러한 연결성의 시공간성을 재사유함으로써 아시아의 다양한 지역들이 지역의 현안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이론적 기반을 제공하고자 하는 ‘아시아에 대한 새로운 개념화이자 상상’이다. 아시아를 새롭게 개념화하고 상상하기 위해 적용된 방법론이 바로 ‘아시아를 국가 혹은 개별 지역 단위로 바라보지 않고 그 전체를 연구의 단위로 삼는 접근’이다.<sup>5</sup>

메가아시아는 아시아의 다양한 주체들의 상호작용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틀로서, 거대지역으로서 아시아를 하나의 유기적이고 관계적인 대상으로 파악한다.<sup>6</sup> 신범식에 의하면 메가아시아 접근은 기존의 아시아 지역 연구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차별성을 보인다.<sup>7</sup> 첫째, 하위 지역 단위로 분리된 기존 지역연구의 한계를 넘어서 지역 간의 연계와 네트워크에 초점을 맞춘다. 거대지역으로서 아시아의 초연결성은 단순히 하위지역 간의 수평적 연계나 제국처럼 중심과 주변의 연계뿐만 아니라 무수한 중층적 연계를 내포한다는 점에서 지역을 고정된 실체로 간주한 전통적인 지역연구

- 
- 4 ‘메가아시아’는 2020년 5월에 발족한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HK‘메가아시아연구소사업단에서 처음으로 제안한 개념으로, 2020년 12월에 개최된 “메가아시아와 아시아들” 심포지움을 통해 처음으로 대외적으로 논의되었고, 신범식의 논문 「부상하는 메가아시아: 역사와 개념」을 통해 학술적 출판물에서 처음으로 다루어졌다[신범식(2021), 「부상하는 메가아시아: 역사와 개념」, 『아시아리뷰』 11(2),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메가아시아 연구의 이론적 기반, 방법론 등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저서·논문 참고. 신범식·유성희 편저(2023), 『메가아시아 연구 입문』, 서울: 진인진; Ilhong Ko(2023), “Exploring the Historical Foundations of Korea’s Connections with South Asia Using the Framework of “Mega-Asia””, 『인문논총』 80(3),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유성희(2022), 「‘세계체계 관점’과의 비교를 통해 바라본 메가아시아 개념의 특징: 이론적 체계와 방법론적 도구의 공존」, 『아시아리뷰』 12(2),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 5 메가아시아 개념의 ‘메가’는 이러한 의도를 담고 있다. ‘Mega’의 어원인 고대 그리스어의 μέγας(mégas)는 ‘엄청나게 큰’이라는 뜻을 가진다.
- 6 신범식(2023), 「메가아시아의 부상과 아시아의 미래」, 『메가아시아 연구 입문』, 서울: 진인진, pp. 375-404.
- 7 신범식(2021), p. 9.

와 달리 탈영토주의적이고 관계적인 공간론<sup>8</sup>을 지향한다. 즉 지역 간의 경계는 가변적이며 지역의 규모는 작은 단위에서부터 큰 단위에 이르기까지 사회적으로 구성된다는 구성주의적 공간인식론과 맞닿아 있다. 이 지점에서 메가아시아의 내부/외부 경계와 규모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상대적이며 협상될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둘째, 메가아시아는 현재적이고 실천적인 개념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과거와 현상 기술에 치중한 전통적인 지역연구와 차별화된다. 셋째, 메가아시아는 오리엔탈리즘에 기반하여 서구에 의해 피동적으로 호명된 아시아를 넘어서 아시아에 의한 능동적 자기 인식과 관점을 제안하는 새로운 아시아 연구의 흐름에 있는 최신 담론이다. 오리엔탈리즘에 대한 비판적 성찰에 입각한 아시아의 자기 인식이 탈식민, 탈냉전 이후로 모색되어 왔지만, 여전히 제국주의의 영향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거나 특정 국가나 지역에 국한된 한계를 보여온 가운데,<sup>9</sup> 메가아시아 담론은 지구화 이래로 부상해 온 공간적 전회(轉回, spatial turn)와 탈영토주의를 이론적으로 접목하여 아시아의 특수성을 지구적-보편적인 개념으로 설명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연구 대상이나 방법론, 관점에서 차별성을 보인다.

그렇다면 ‘아시아 전체’를 분석의 단위로 삼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메가아시아 연구에서 ‘전체’에 초점을 맞춘 이유는 국가 및 개별 지역 단위에서만 연구를 진행하는 분절된 시각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시아 ‘전체’를 본다는 것은 반드시 아시아 ‘전부’를 본다는 것이 아니라 아시아의 ‘부분만을 보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

8 관계적 공간론(relational approach to space)이란 공간을 주어진 물리적 실체가 아닌 사회적 과정의 결과물이자 매개체로 보는 관점으로 공간이란 항상 관계적으로 생산되고 변화한다는 인식론이다. 공간에 대한 관계적 인식은 뉴턴 역학에 대항하는 라이프니츠 철학 등에서도 이미 표명되었으나 1990년대 말 이후 포스트모더니즘 및 포스트구조주의에 입각하여 공간적 전환(spatial turn)이라고 불리는 사회과학에서의 주요 전환과 더불어 본격적으로 탐색되었다. 이러한 접근의 변화를 집대성한 대표적인 텍스트로 2004년에 출간된 Doreen Massey의 *For Space*[도린 메시 저(2016), 박경환 외 역, 『공간을 위하여』, 서울: 삼산] 참고.

9 신범식(2021), p. 9.

해, 아시아 지역학 연구의 단위가 특정 국가 혹은 개별 지역에 고정되어 있었던 지금까지의 틀을 깨겠다는 것이다.

그러한 틀을 깨는 방법으로는 우선 ‘줌-아웃’(zoom-out)이 있다. 국가 및 개별 지역 이상을 분석의 단위로 설정하여 새롭게 구성된 데이터 세트를 기반으로 아시아에서 포착되는 다양한 현상을 새롭게 조망하거나, 기존의 분석 단위에서는 포착되지 않았던 새로운 연결성을 드러낸 지금까지의 메가아시아 연구가 이러한 전략을 택해왔다.<sup>10</sup> 그러나 ‘줌-아웃’이 아니라 ‘줌-인’(zoom-in)을 하는 방법도 있다. 즉, 아시아 전체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의 총체가 마치 프랙탈(fractal)과도 같이 더 작은 단위에서도 동일하게 포착될 수 있다는 전제에 기반하여<sup>11</sup> 연구 대상 주제의 아시아적 모습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소우주(microcosm)와 같은 장소를 선정하여, 그 장소에서 관찰되는 현상과 역학과 연결성을 통해 아시아 전체에 대한 시사점을 확보할 수 있다. 메가아시아 연구자들은 ‘한국 속의 메가아시아’라는 표어를 통해 이러한 ‘줌-인’ 전략의 기본적인 구상만을 제시해 놓은 상태이며, 사례 연구를 통한 방법론의 구체화나 해석적 가능성에 대한 고민은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다.

아시아 이주 현상에 대한 총체적 이해의 필요성을 느끼면서 한편으로

10 예를 들어, 심우진·허정원·박선영(2023), 「데이터로 보는 아시아의 지역들」, 『메가아시아 연구 입문』, 서울: 진인진, pp. 357-374.

11 ‘프랙탈’(fractal)은 수학자 만델브로(Mandelbrot)가 20세기 중반에 창안한 용어로, 어떠한 물체가 재귀(再歸)적으로 분할되어도 그 모습이 원래의 모습을 유지하며, 따라서 비록 거칠지만 일종의 내재적 패턴이 확인되는 현상을 지칭한다. 이러한 프랙탈 현상의 특징으로는 ‘자기 유사성’(self-similarity), ‘척도 불변성’(scale invariance), 그리고 ‘멱법칙(冪法則) 관계’(power law relations) 등이 있다. 프랙탈은 수학적 이론으로 출발하였으나 사회과학의 다양한 데이터 세트에서도 해당 현상이 확인되는 관계로 1990년대부터는 사회과학 분야에서 프랙탈 분석이 본격화되었다. 프랙탈 분석이 적용된 사회과학 분야의 사례로는 노동의 젠더분업을 살펴본 애벗의 연구, 현대의 수렵-채집 사회들에서 확인되는 집단 위계와 집단 규모의 상관관계를 다룬 해밀턴 외의 연구 등을 들 수 있다[Clifford Brown & Larry Liebovitch (2010), *Fractal Analysis* (Quantitative Applications in the Social Sciences Book 165), London: Sage, p. ix].

아시아의 ‘전부’를 다루는 것이 개별 연구자 수준에서 완료할 수 있는 작업은 아니라고 판단한 필자들에게는 이러한 ‘한국 속의 메가아시아’ 접근은 매우 유용하다고 판단된다. 특히 앞서 언급한 다양한 이주 형태로 유입된 집단들이 매우 높은 밀도로, 그리고 일상적으로 서로 ‘마주치는’ 현상들이 오늘날 한국에서 관찰되고 있으므로 일상에서 메가아시아적 경험을 포착하기가 용이해졌다. 따라서 필자들은 ‘한국 속의 메가아시아’ 접근의 이론적 기반을 구체화함으로써 이러한 방법론의 해석적 가능성을 심화시키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목적을 가진 필자들이 천착한 것은 메가아시아 구상이 ‘공간적인’ 구상이라는 점이다.

공간적 구상에 기반한 메가아시아 접근은 특히 지역 간 분리와 예외성 설명에 치중했던 기존의 지역연구가 담아내지 못했던 지역 경계를 넘는 이주라는 유동적인 모빌리티를 포착하는 데 유용성을 제공한다. 이주와 이주민의 정착을 로컬의 특수성으로 환원하지 않고 로컬의 특수성을 만들어 내는 보편적 공간적 기제를 규명하는 데 통찰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주연구에 메가아시아 관점의 접목은 풍부한 논의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

메가아시아 개념은 아시아를 분절된 하위 단위의 고정된 함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경계가 유연하게 재구성될 수 있다는 탈영토적이고 관계적인 공간인식에 기초하고 있다. 즉 메가아시아는 줌-아웃과 줌-인을 통해 다양한 공간 규모와 층위에서 재구성될 수 있다. 이를 공간연구에서는 다중스케일적(multiscalar) 접근이라고 하는데, 다시 말해 메가아시아는 다양한 스케일에서 생산되고 포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간 메가아시아 연구는 기존 지역연구의 분절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주로 줌-아웃, 즉 큰 지역 단위에서의 연결성을 주목해 왔다. 이주 연구의 역동성과 전체적인 유기성을 포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줌-아웃 접근도 매우 유용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메가아시아 연구에서 그간 다루어지지 않은 줌-인 접근을 새롭게 제안함으로써 이주연구와 메가아시아 연구의 상호 접목 가능성을 확장하고자 한다.

이러한 줌-인 접근의 일환으로서 ‘한국 속의 메가아시아’를 탐색하기 위해 본 필진은 이주와 다문화주의 연구에서 국내 학자에 의해 제안된 개념인 ‘다문화공간’에 주목하고 이를 한국 속의 메가아시아를 구체적으로 포착하고 해석할 수 있는 개념적 자원으로 발전시키고자 한다.

## 2. 한국 속의 메가아시아, 다문화공간

### 2.1. 다문화공간에 대한 이론적 고찰

최근 다양한 매체에서 외국인 집중 거주지역을 지칭하는 용어로 자주 등장하는 ‘다문화공간’은 원래 최병두<sup>12</sup>에 의해 최초로 학술적 개념으로 정교화되었다. 다문화공간은 다문화주의라는 정치·사회·문화적 과정을 공간적으로 사유하는 제안으로서, 근본적으로 다문화주의가 공간적인 과정임을 전제하고 있다. 서구에서 유래한 다문화주의는 정책이자 통치 이데올로기로서, 문화적 규범이자 가치로서 여러 층위에서 작동하고 있다. 다문화주의 논의가 정치와 제도 논의에 매몰되면 그것이 마치 모든 주권 공간 내에서 균등하게 작동하는 듯한 착각을 불러오는 동시에 다문화주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평등과 인정투쟁의 구체적 양상이 간과될 수 있다. 특히 로컬마다 상이하게 발생하는 갈등과 현안들이 마치 로컬 특수의 문제인 것처럼 간주되어 로컬과 국가, 초국가적 차원에서 복잡하게 때로는 상충되게 작동하는 초국가적 이주와 정착, 이주 거버넌스의 스케일 간 차별화 과정이 간과될 수 있다. 다문화주의에 대한 공간적 접근을 주창한 최병두는 바로 이런 지점을 보완하기 위한 개념을 제안한다.

12 최병두(2009), 「다문화공간과 지구지방적 윤리」,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5(5), 한국지역지리학회; 최병두 외(2011), 『지구·지방화와 다문화 공간』, 서울: 푸른길.

공간적 전회 이래로 공간적 개념화는 기존 사회이론의 한계와 틈새를 보완하는 장치로서 다양한 학문 분과에서 탐색되어 왔다. 최병두에 의하면 공간적 개념화는 네 가지 측면에서 근대적 선형성을 극복하는 대안으로 이론적 유용성을 지닌다. 첫째, 공간적 개념화는 사물들의 위치성과 관계에 기초하여 사물들의 본질을 존재론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sup>13</sup> 이는 사물들의 위치성과 관계가 사물의 본질을 반영한다는 인식에 기초한다. 둘째, 사회적 상호행위는 사회적 제도의 장기-지속을 통해 사회-공간적으로 구조화되며 이러한 구조가 다시 상호행위를 조건 짓는데, 공간적 인식은 이러한 사회-공간적 변증법을 통해 사회와 공간의 상호작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sup>14</sup> 셋째, 공간적 개념은 힘과 헤게모니 관계를 반영(또는 은폐)하는 메타포로서 자주 동원되는데, 지배적인 메타포는 현실을 규정하는 힘이 있다. 가령 중심-주변, 남-북, 제1세계-제3세계 등 이분법적 공간 개념은 주체와 타자를 공간적으로 배치시킴으로써 헤게모니 속성을 드러낸다.<sup>15</sup> 이처럼 공간적 개념화는 언어적 재현을 넘어 그러한 상상이 현실에서 작동하는 것을 정당화하거나 은폐하기도 한다. 공간에 대한 비판적 통찰은 공간화된 헤게모니를 해석하고 해체하는 이론적 도구가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공간적 개념화는 특히 지구화 시대 대안적인 사회윤리 개발에 도움을 준다.<sup>16</sup> 근대적 선형적 시간 속에서 태동한 공간 질서는 자아와 타자의 분리를 전제로 했다. 이방인은 도시의 슬럼에 분리되었고 도시는 비도시를 타자화하고 착취함으로써 성장했다. 그러나 지구화와 공간적 전회 이래로 진행되어 온 일련의 사회-공간변화는 이러한 이분법적이고 배타적인 공간 질서에 문제를 제기하게 만들었다.<sup>17</sup> 이제는 배타적 경계짓기를 넘어 지구적

13 최병두 외(2011), p. 18.

14 최병두 외(2011), p. 19.

15 최병두 외(2011), pp. 19-20.

16 최병두 외(2011), p. 20.

17 최근 국제사회에서 핫이슈가 되고 있는 이주나 기후위기 담론이 대표적인 예이다. 대규모



시민사회 구성원으로서 상호연관성에 기반한 책임의 윤리<sup>18</sup>가 더욱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

이처럼 공간적 전회 이래로 다양한 사회이론에서 차용해 온 공간적 개념은 차이의 동시적 공존과 존재의 상호구성을 인식론적으로, 존재론적으로 사유할 수 있는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유용성을 지닌다. 국제이주를 통해 탄생한 다문화주의를 이러한 공간적 개념을 통해 이해하려는 시도가 ‘다문화공간’이라고 볼 수 있다.

이 개념을 최초로 제안한 최병두는 다문화공간을 통해 지구지방적 차원에서 가속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문화적 교류 및 혼재와 관련된 사회공간적 현상들을 담지하고자 했다.<sup>19</sup> 그에 의하면 다문화공간이란 지구지방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인종적, 문화적 교류와 혼합에 관한 정책이나 계획과 관련되며,<sup>20</sup> 문화적 다양성에 관한 인정을 전제로 한 규범적 윤리와 민주적 정치의 이상을 추구하는 실천적 함의를 지닌다.<sup>21</sup>

이러한 다문화공간은 다문화주의로 인한 갈등을 극복하고 정의롭고 민주적인 사회공간의 형성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계급적 불평등을 은폐한다는 서구 자유주의 다문화주의의 개념을<sup>22</sup> 극복하고자 했다. 즉 획일적으로 위

---

모 이주의 시대를 촉발한 것은 지구적인 불균등 발전과 오랜 식민주의 착취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그렇게 시작된 대이민의 시대는 배타적 영토와 주권에 기반한 국민국가 체제를 송두리째 흔들고 있다. 오늘날의 기후위기 역시 원인 제공자와 피해자가 역사적으로, 공간적으로 불일치하기에 그 대응을 어렵게 한다. 지구화 시대 배타적 영토주의에 입각한 철학과 윤리는 인류가 직면한 문제를 성찰하고 해결하는 데 더 이상 효과적이지 않다는 함의를 준다.

18 Doreen Massey (1994), *Space, Place and Gender*, Minnesota: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도린 매시 저(2015), 정현주 역, 『공간, 장소, 젠더』,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19 최병두(2009), p. 25.

20 최병두(2009), p. 26.

21 최병두(2009), p. 28.

22 서구 다문화주의의 주류를 구성하고 있는 윌 킴리카의 논의를 참고할 것. Will Kymlicka (1995), *Multicultural Citizenship*,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로부터 주어진 다문화주의가 아니라 로컬에 기반한 다문화공간을 통해 ‘차이를 유예하는 집단의 보금자리, 안전공간, 연대의 근원’<sup>23</sup>이 형성될 수 있는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한 것이 다문화공간이 지향하는 이론적 실천이다. 이를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조성된 보여주기식 다문화공간(가령 시 정부에 의해 관광지로 조성된 차이나타운)이 아닌 이주자들의 장소만들기 실천을 통해 아래로부터 탄생한 다문화공간에 주목해야 한다고 최병두는 주장한다.<sup>24</sup> 이러한 공간이야말로 ‘초국적 자본주의의 문화적 논리’ 또는 ‘자본주의의 통합된 색채들’<sup>25</sup>이라는 마르크스주의자의 다문화주의 비판에 대한 하나의 대안으로서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다문화공간은 다문화주의라는 제도를 담는 공간이 아니라 이주라는 지구지방적 과정을 통해 특정 장소에 차이가 공존하는 존재론적 현상을 매개하는 공간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서구적 다문화주의 이론에 대한 대안으로서 다문화공간을 제안하는 이유이다.

다문화주의는 자본이 승인하고 국가가 강제하는 피동적 다문화주의와 시민사회와 이주자가 함께 추진하는 능동적 다문화주의로 구분될 수 있다.<sup>26</sup> 흔히 말하는 다문화사회는 이러한 두 가지 측면이 동시에 존재하는데 그간 주류 학문에서 큰 주목을 받지 못했던 후자(능동적, 실천적 다문화주의)는 인정의 정치를 실천한다는 점에서 다문화공간과 더욱 잘 접목될 가능성이 있다. 최병두<sup>27</sup>는 다문화공간을 통한 인정의 정치는 자본과 국가 권력에 저항하는 재분배 정치로 나아갈 잠재성이 있으므로 정치사회운동에서 주목

23 J. Nicholas Entrikin(2004), “Democratic place-making and multiculturalism”, *Geografiska Annaler, Series B. Human Geography* 84(1), pp. 19-25.

24 최병두 외(2011), p. 29.

25 Slavoj Žižek (1997), “Multiculturalism, or, the cultural logic of multinational capitalism”, *New Left Review* 225.

26 윤인진(2008),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전개와 특성-국가와 시민사회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42(2), 한국사회학회; 최병두 외(2011).

27 최병두 외(2011).

할 것을 주장한다.

이처럼 다문화공간은 애초에 이민자의 공간을 현상적으로 설명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지구화 시대 초국가적 이주를 통해 양산되는 차이의 공존을 설명하고 이를 인정투쟁 및 재분배 정치로 전환하려는 정치적 기획에서 제시되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후속 연구에서는 이러한 정치적 실천보다는 다문화적 현상을 포착하기 위한 수식어로 다문화공간이 차용되었다. 한국 사회에서 ‘다문화’라는 근본 없는 용어의 탄생과 연관 개념의 난립을 비판하면서 허권<sup>28</sup>은 최병두<sup>29</sup>와 유사하게 다문화과정을 공간적으로 포착하려는 의도에서 안산시 ‘국경없는 마을’을 사례로 다문화공간의 작동에 고찰했다. 그는 ‘이주한 외국인들이 밀집해서 공동체를 형성하며, 그들의 문화를 보존하여 경관으로 나타나는 지역’<sup>30</sup>이라고 다문화공간을 정의하면서 한국에서 나타나는 다문화공간을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첫 번째 유형은 식민과 탈식민, 특히 한국에서는 냉전과 탈냉전이라는 국제 지형학적 맥락에서 탄생한 외국인 집적지로서 이태원과 인천 차이나타운 등이 해당한다. 두 번째 유형은 21세기 이후 고용허가제<sup>31</sup>라는 이주 거버넌스로 인해 등장

28 허권(2021), 「안산시 외국인 정책 및 다문화 공간 방향성에 대한 비판적 고찰」, 『공간과 사회』 31(3), 한국공간환경학회.

29 최병두(2009).

30 허권(2021), p. 310.

31 고용허가제는 현재 한국 정부가 운영하는 대표적인 해외 노동자 도입 프로그램으로 주로 저숙련, 단기체류형 외국인 노동자 수용을 담당하고 있다. 한국 최초의 외국인 노동력 도입 제도였던 산업연수생 제도를 폐지하고 외국인을 공식적인 노동자로서 표준 근로계약서를 바탕으로 그 처우와 법적 지위를 규정하기 시작한 제도로, 2004년부터 시작되어 현재 17개 아시아 국가들과 MOU를 맺고 이들 국가로부터 노동력을 수용하고 있다. 고용허가제는 크게 MOU 체결국의 일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고용허가제(E-9 비자)와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특례고용허가제(H-2 비자)로 구분되어 있으며 3년을 기본으로 최대 4년 10개월까지 체류를 최대 2회까지 허용하고 있으며, 일반고용허가제의 경우 입국 전에 한국의 고용주와 고용계약을 맺은 뒤 일정 기간 준비 과정을 거쳐 작업장에 배치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들을 고용할 수 있는 사업장은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체로, 직종과 지역에 따라 신청가능한 외국인력 수가 탄력적으로 배정되며(뿌리산업이나 지방기업 우대) 국내 노동시장 상황에 따라 인력 결손이 발생하는 지정된 업종에

한 후기 다문화공간으로, 전자와의 가장 큰 차이는 이주민과 선주민의 관계이다. 주류사회와 분리되어 자발적인 배타적 공간으로 탄생한 소수민의 정착지였지만 점점 관광지화된 전자와는 달리 후자는 한국 사회와 교류하고 통합하려는 의지가 강한 저숙련 노동자 및 결혼이민자들이 만든 일상적 다문화공간이다. 그러나 이 역시 지자체 및 정책행위자들과의 불균등한 권력 관계 속에서 다문화주의의 원래 이념과 다소 떨어진 또 다른 소외지역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저자는 비판한다.

그 밖에 다문화공간을 차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내 연구들은 한국 사회의 이주자 소수민들이 집거하는 공간을 지칭하는 용어로 다문화공간을 더 좁게 사용하고 있다. 특히 주류사회의 차별과 배제 및 그로 인한 갈등이라는 맥락에서 주류사회로부터 배제된 이주자의 공간을 지칭하거나<sup>32</sup> 이주자들의 정체성의 정치를 매개하는 공간으로 차이가 공존하는 이주민 집거지를 지칭했다.<sup>33</sup>

이상의 다문화공간과 가장 유사하게 사용되는 전 세계적인 공용어는 에스닉 엔클레이브(ethnic enclave)이다. 차이나타운, 코리아타운 등 소수 이주민의 집거지이자 상업 공간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그러나 이 용어가 한국 사회에서 잘 쓰이지 않는 이유는 한국에서 이주민 집거지는 에스닉 집단을

---

만 외국 인력을 고용하도록 자세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고용허가제 공식 홈페이지 참고(<https://www.eps.go.kr/eo/EmployPerSystem.eo>). 2024년 5월 현재 고용허가제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노동자는 42만 6,408명이며 내년에는 역대급 증원(16만 5,000명)이 예정되어 있는 등 국내 외국인 집단 중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 32 공윤경(2013), 「다문화공간에 대한 이중적 시선과 차별화」, 『한국민족문화』 48,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권운(2011), 「다문화 공간에는 누가 사는가: 다문화공간을 둘러싼 갈등」, 『한국의 다문화 공간: 우리 사회 다문화 이주민들의 삶의 공간을 찾아서』, 서울: 현암사.
- 33 김윤영(2019), 「다양한 주체자들에 의해 만들어지는 다문화공간의 정체성과 그 담론」, 『공간과 사회』 29(4), 한국공간환경학회; 정병호·송도영 편(2011), 『한국의 다문화 공간: 우리 사회 다문화 이주민들의 삶의 공간을 찾아서』, 서울: 현암사; 차철욱(2014), 「김해 이주민 여가공간의 형성과 로컬리티의 재구성: 음식점을 중심으로」, 『로컬리티 인문학』 12,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기준으로 배타적으로 형성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이다. 전기 다문화공간에 해당하는 인천 차이나타운이나 대림동 조선족타운 정도가 거의 유일한 국내 에스닉 엔클레이브 사례일 것이다. 나머지는 특정 에스닉 집단이 아닌 다양한 에스닉 집단이 공존하는 형태를 띠고 있으며 선주민과의 경계도 서구에 비해 유연하게 구성되어 있다. 즉 서구의 에스닉 엔클레이브는 (백인) 선주민의 교외화로 인해 공동화되고 슬럼화된 도심에 주류사회로부터 배제된 에스닉 타운이 형성되는 역사적 과정을 거쳤다. 또한 에스닉 집단별로 상이한 시기에 정착함으로써 각각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구분된 배타적 영토를 구성했다.

그러나 결혼이주와 고용허가제를 통해 21세기 이후 거의 동시대적으로 한국에 입국한 외국인들은 에스닉 집단별로 차별화된 영토를 애초에 가질 수 없는 구조였다. 국내 외국인들의 거주지는 그들의 남편(가족) 주소지에 따라, 취업한 작업장의 위치에 따라 배정되는 것이지 에스닉 집단별로 자조적으로 그들만의 영토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에스닉 집단별로 구분된 공간이 아닌 다양한 집단이 공존하면서 한국의 주류공간과는 다른 이주민들을 지원하는 공간이 전국 곳곳에 생겨나기 시작했다. 서구의 에스닉 엔클레이브가 거의 대부분 대도시 도심 주변에 몰려 있는 것과 반대로 한국의 외국인 집거지는 대도시가 아닌 중소도시의 구도심이나 전통시장 주변에서 주로 발생하는 입지적 차이가 이러한 상황을 반영한다. 따라서 한국의 다문화 과정을 고려할 때 서구의 이론과 개념이 아닌 한국의 특수성을 포착하는 개념이 필요하다. 다문화공간은 한국적 다문화 과정을 반영한 최초의 개념으로서, 본 필진은 서구 개념의 차용보다는 아직 이론화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다문화공간 개념을 확장하고 정교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2.2. 다문화공간과 메가아시아

이상과 같이 다문화공간은 아직 이론적 개념으로서 충분히 검토되고 개발되지 못한 상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적 다문화주의를 이해하고 아시아적 맥락에서 그 특수성과 보편성을 포착하는 데 유용성이 있다고 판단한 필진은 ‘다문화공간’과 ‘메가아시아’의 접목이 양 개념의 이론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문화공간은 특히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메가아시아 개념을 발전적으로 확장시킬 수 있다.

다문화공간과 메가아시아의 첫 번째 접점은 ‘장소성’(場所性)이다. 이주를 통해 형성된 차이와 다양성의 공존 및 혼종을 포착하는 개념인 다문화공간은 메가아시아적 현상이 특정 장소를 매개로 발현한 사례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다문화공간은 메가아시아라는 거시적이고 다소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화하는 ‘개념적 도구’가 될 수 있다. 특히 초(trans) 아시아라는 거시적인 메가아시아 관점(춤-아웃 접근)을 미시적으로 확대하여(춤-인 접근) 아래로부터의 메가아시아를 이해하고, 거시와 미시를 아우르는 메가아시아의 다중스케일적 구성을 드러내는 하위개념으로 정착될 수 있다.

또한 다문화공간은 고정된 영역성을 극복하고자 하는 메가아시아의 탈영토주의적 제안을 실제로 보여주는 ‘분석적 도구’가 될 수 있다. 다문화공간과 유사한 이주에 대한 공간적 접근은 특정 장소 안에서 발현되는 차이의 공존과 정체성의 정치,<sup>34</sup> 경계의 끊임없는 재구성,<sup>35</sup> 영역적으로 배타적으로 구성되는 정체성 대신 다중적이며 동시에 존재하는 이주민의 초국가

34 허권(2021); Ruth Fincher *et al.* (2019), *Everyday Equalities: Making Multicultures in Settler Colonial Cities*, Minnesota: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Sofya Aptekar (2019), “Super-diversity as a methodological lens: re-centring power and inequality”, *Ethnic and Racial Studies* 42(1).

35 박배균(2009), 「초국가적 이주와 정착에 대한 공간적 접근」,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5(5), 한국지역지리학회; Kristen Biehl (2020), “A dwelling lens: migration, diversity and boundary-making in an Istanbul neighbourhood”, *Ethnic and Racial Studies* 25.

적 소속감<sup>36</sup> 등을 보여줌으로써 이주가 고정된 영역성을 해체하고 끊임없이 경계와 정체성을 재구성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이처럼 관계적 공간론에 입각한 다문화공간 개념은 서남아시아,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등이 합쳐진 영역적 총체로서 메가아시아가 아닌, 그 자체가 하나의 단위로서 미시적 공간에 존재할 수도, 거시적 공간에 걸쳐 존재할 수도 있는 탈영토적이고 다중스케일적 구성체로서 메가아시아의 면모를 구체화시킨다.

이처럼 ‘메가아시아 현상을 포착할 수 있는 개념적·분석적 도구’로서 다문화공간을 구상하는 필진은 특히 해당 개념을 다음과 같이 규정함으로써 다문화공간 담론과 메가아시아 담론을 둘 다 풍성하게 하고자 한다. 우선 다문화공간을 초국가적 이주라는 지구지방적 과정을 통해 특정 장소에 차이가 공존하는 현상으로 규정한다. 따라서 본고의 ‘다문화공간’은 다문화주의라는 제도가 발현되는 공간이라는 협소한 의미가 아니며 국제결혼 가정에 대한 정책을 의미하는 한국식 다문화정책과도 무관하다. 또한 이주자들의 공간을 의미했던 기존의 에스닉 엔클레이브나 초국가적 장소 등과도 차별성을 지닌다. 특히 특정 에스닉 이주민들이 이국의 특정 영토에 본인들의 에스니티를 이식한 ‘에스닉 엔클레이브’는 특정 문화적 실천으로 도시 하위지역의 경계를 만들어 나가는 배타적 영토화 과정을 의미하므로 이중 문화의 공존이나 복수 에스니티시의 발현을 해석하는 개념으로서는 부적절하다.

또한 다문화공간은 두 가지 공간적 과정을 핵심적으로 내포한다. 첫째, 최병두<sup>37</sup>도 지적했듯이 다문화공간은 다중스케일적으로 작동한다. 이는 다

36 이영민 외(2013), “중국 조선족의 글로벌 이주 네트워크와 연변지역의 사회-공간적 변화”,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6(3), 한국도시지리학회; 정현주(2010), 「대학로 ‘리틀마닐라’ 읽기: 초국가적 공간의 성격 규명을 위한 탐색」,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6(3), 한국지역지리학회; Peter Jackson (2004), “The spaces of transnationality”, *Transnational Spaces*, London: Routledge.

37 최병두(2009).

문화공간을 생산하는 기제가 다중스케일적이라는 의미와 함께 그 결과물인 다문화공간 자체도 다중스케일적으로 존재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즉 다문화공간은 지구적이면서도 지방적인 과정이 동시에 작동하여 생산된다. 가령 지구화의 양상이 대이민의 시대를 촉발시켰으며 국제 지경·지정학적 관계는 송출국과 수용국의 역학 등 이민의 방향성을 조성한다. 이와 동시에 특정 장소로의 집중은 그 장소가 지닌 장소성(정치적 기회구조, 이주 인프라의 분포, 입지, 지역 노동시장 조건과 지역문화 등)에 의해 절대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또한 다문화공간은 거시적인 지역일 수도 특정 건물이나 집처럼 협소한 장소일 수도 있다는 점에서 그 작동 스케일과 경계가 중층적이고 유연함을 내포한다.

둘째, 다문화공간은 특정 에스니시티가 배타적으로 전유하는 공간이 아니라 다양성이 공존하는 공간이다. 다양한 국적과 체류자격, 에스니시티를 지닌 이주자들이 마주치면서 일상에서의 다문화화를 만들어가는 곳이다. 이런 점에서 다양성이 공존하는 마주침의 공간으로 다문화공간을 정의할 수 있겠다. 최병두<sup>38</sup>의 제안처럼 이를 위해서는 위로부터 조성된 인위적 공간이 아닌 이주민들의 필요와 실천, 투쟁을 통해 만들어진 자생적, 대안적인 공간의 조성이 필요하다.

한국의 다문화공간은 아시아적 도시화 과정과 한국형 다문화주의의 특수성을 포착하고 드러내는 전략적 지점이 될 수 있다. 한국에서 다문화주의는 서구적 인종주의와 다른 방식의 차별화 기제가 작동하는데, 특히 고용허가제 등 국가 주도로 이주민을 배치하는 한국의 시스템하에서는 이주민이 공간을 선택할 수 없으며, 그 결과 에스닉 그룹별로 분리된 영토가 아닌 '외국인'으로 두루뭉술하게 타자화된 다양한 이주민이 공존하는 공간(즉 '다문화공간')에서 주류사회와 분리되어 있다. 그러나 모두의 예상과는 달리 이러한 억압적 상황은 도시라는 공간에서 우연적 마주침과 문화적 교류를 통해

---

38 최병두(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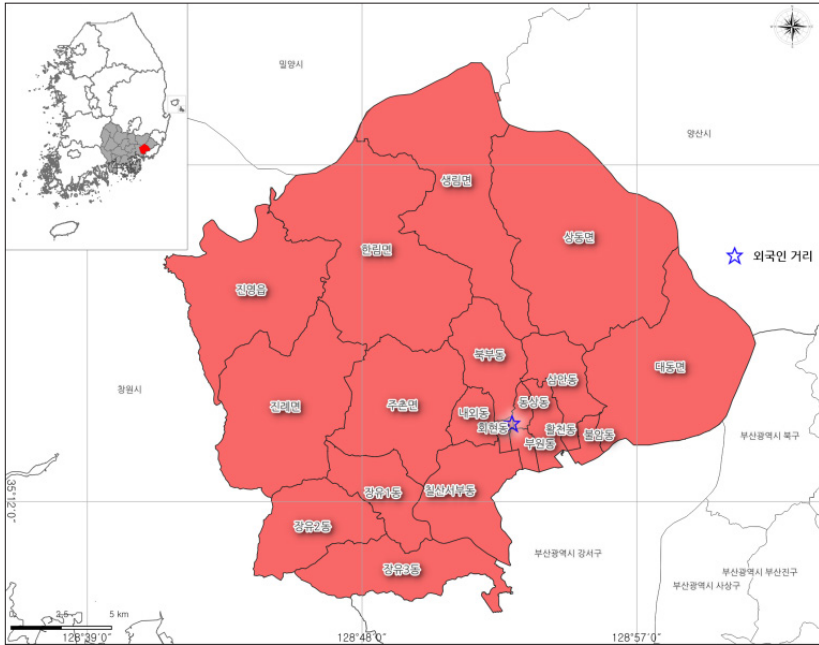


새로운 구심점이 만들어지는 역설을 창출하기도 한다.

주류사회에서 배제된 주변이나 틈새에서 이러한 타자들의 공간이 만들어지는데, 이는 주류사회를 반영하면서도 그에 반하는 대안적인 존재 방식이 협상되는 현상이다. 이주민들이 장악하는 도심이 슬럼화되어 주류사회로부터 소외된 서구 도시와는 달리 도심의 경쟁력이 여전히 존재하는 한국의 중소도시에서 이주노동자를 대거 고용하는 산업체들의 경제적 기여는 한국 사회에서 이주노동자들이 슬럼화된 공동공간에 방치되기보다는 쇠퇴해 가는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거나 주류공간의 가장자리에 스며드는 형태로 공존하는 양상을 발전시키고 있다.

### 3. 사례연구: 다양성이 공존하는 변방, 김해 외국인거리

‘한국 속의 메가아시아’로서 한국의 다문화공간을 탐색하는 작업은 매우 방대한 작업이다. 따라서 국내의 다양한 다문화공간을 특정·분류·분석하기에 앞서 대표 사례를 선정하여 시론적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주목한 지역은 경상남도 김해시이며, 특히 구도심에 조성된 외국인거리를 핵심 사례지역으로 선정하고자 한다. 김해시 외국인거리는 구도심인 동상동, 서상동 일대에 조성된 다문화 상업지역이다(그림 1). 김해 유일의 전통시장인 동상시장을 핵심 축으로 외국인들을 위한 상업시설(음식점, 식료품점, 잡화점 등)과 각종 서비스 지원시설(유흥·여가, 택배·이사, 법률·행정서비스, 인력소개, 송금·금융서비스, 종교시설 등)이 밀집한 복합 상업문화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그림 3). 국내 대부분의 다문화공간이 그러하듯 이곳 역시 주거기능보다는 상업·여가기능을 주로 지원하는데, 이는 다문화공간의 주 방문자인 비전문취업 외국인노동자들이 대부분 공장 인근의 기숙사에서 주 6일 근무하며 일요일에만 외출하는 시간표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다. 진영읍, 한림읍 등 김해시 변방의 공장 밀집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외국인노동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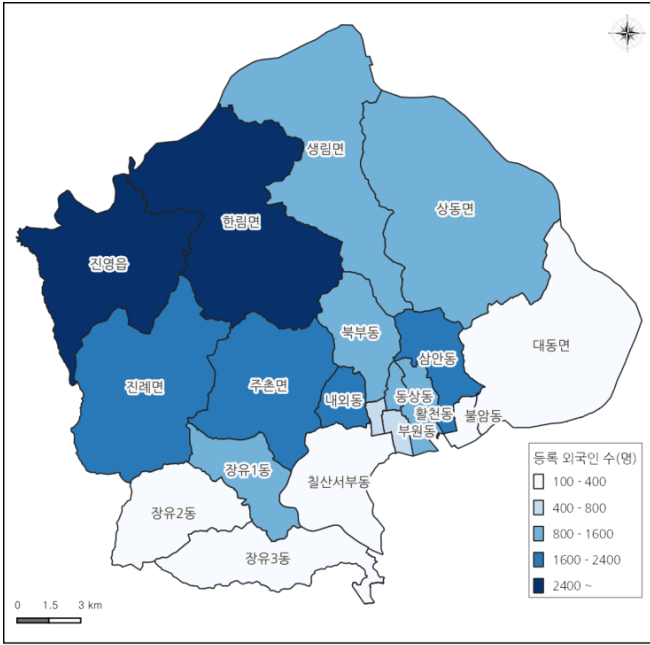


[그림 1] 김해시 외국인거리 위치(저자 직접 제작)

들이(그림 2) 주말마다 김해시 도심에 조성된 다문화공간을 여가 및 쇼핑을 위해 방문하는 패턴을 보인다.

이처럼 외국인노동자들이 주말마다 몰려드는 곳을 에스닉 엔클레이브에 빚대 ‘주말 엔클레이브’(weekend enclave)라고 부른다. 아시아의 대표적인 다문화사회인 홍콩, 싱가포르 등에서는 주로 여성 가사노동자들이 이러한 주말 엔클레이브를 조성하고 있다.<sup>39</sup> 그러나 남성 제조업 노동자를 대부분

39 사회경제적 지위가 극도로 취약하고 안정된 주거가 없는 여성 가사노동자들이 유일한 휴일(일요일)을 저렴하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주말마다 비어있는 도심의 시설을 한시적으로 점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외국인 가사노동자를 대거 고용하는 홍콩, 싱가포르의 도심에는 이들의 거대한 주말 엔클레이브가 오래전부터 조성되어 왔다. 이와 관련해서 지구화 시대의 새로운 하층민으로 부상한 외국인노동자, 특히 그중에서도 가장 취약한 여성 가사노동자들을 ‘세계화의 하인’으로 빚대어 주말 엔클레이브를 중심으로 이들이 당면한 중층적인 억압과 다양한 초국가적 실천과 정체성의 협상을 파레나스가 장기간 연구



출처: 김해시청 홈페이지, '인구와 세대'(2024년 6월 기준)(접속일: 2024.7.15.)

[그림 2] 김해시 등록외국인 분포



출처: 저자 촬영(2023.10.)

[그림 3] 김해시 외국인거리 전경

고용하는 한국의 고용허가제<sup>40</sup>는 남성노동자 중심의 주말 엔클레이브를 탄생시켰다. 홍콩, 싱가포르의 가사노동자와는 달리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고 구매력이 있는 공장노동자가 핵심 계층이므로, 국내의 주말 엔클레이브는 (상업기능이 없거나 슬럼화된 외국의 경우와 달리) 대부분 지역상권을 활성화시키는 상업지구 형태를 띤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안산시 ‘국경 없는 마을’인데, 안산의 사례처럼 주말 시장으로 시작하여 상설화된 상업지역으로 변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차별과 배제, 영토에 갇힌 부정적 함의를 내포한 ‘주말 엔클레이브’보다는 역동적이고 확장하는 국내 외국인 공간을 포착하는 새로운 개념이 필요하며 본 필진은 ‘다문화공간’을 통해 이를 탐색하고자 한다.

국내 체류 외국인의 60.7%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sup>41</sup>에서 대부분의 다문화공간 역시 수도권과 인근에 집중되어 있다. 국내 외국인노동자 최대 밀집지인 화성, 안산, 시흥, 김포나 외국국적동포의 밀집지인 구로, 영등포, 시흥, 수원, 부천 등 대부분의 잘 알려진 다문화공간은 수도권에 자리 잡고 있다(표 1). 고용허가제 도입과 더불어 외국인 유입이 활성화된 김해시는 비수도권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노동자를 보유하고 있으며(전국 5위, 표 1 참고), 주로 수도권에 집중 분포하고 있는 외국국적동포<sup>42</sup>는 상대적으로 적은 반면 외국인노동자와 기타 이민자들을 중심으로 다문화공간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수도권 효과<sup>43</sup>가 배제된 거의 유일한 외국인밀집지라는

한 바 있다. Rhacel S. Parreñas (2015), *Servants of Globalization: Migration and Domestic Work*, 2nd edition,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Rhacel S. Parreñas et al. (2021), “Soft violence: migrant domestic worker precarity and the management of unfree labour in Singapore”, *Journal of Ethnic and Migration Studies* 47(20), pp. 4671–4687.

40 2023년 기준 비전문취업(E-9 비자)은 남성이 91.2%를 차지한다[통계청(2023)].

41 통계청(2023).

42 정현주(2020), 「한국 이주정책에서 이주민의 시민적 계층화와 공간분화: 민족과 젠더에 따른 외국인노동자 체류자격 차등화를 중심으로」, 『한국지리학회지』 16(3), 한국지리학회, p. 578.

43 외국인 분포에서 수도권 효과란 수도권이 가진 대도시 인프라가 이들의 거주지 선택에

[표 1] 외국인주민 상위 20개 시군구(2022)

(단위: 명)

순위	시군구	총인구	외국인	주요 외국인 체류자격				
				외국인 근로자	결혼 이민자	유학생	외국 국적동포	기타
1	안산시	715,088	101,850	15,869	5,201	3,059	33,515	28,843
2	수원시	1,216,349	68,633	8,089	4,563	5,585	20,290	17,714
3	시흥시	557,663	68,482	12,225	4,199	1,069	21,572	17,628
4	화성시	931,472	66,955	23,473	4,264	765	10,514	17,717
5	부천시	810,142	55,383	4,927	4,254	1,511	16,602	14,060
6	구로구	424,038	52,845	7,240	2,785	592	19,809	12,657
7	영등포구	401,805	50,380	7,370	2,432	739	20,411	11,823
8	평택시	590,205	43,588	7,596	3,484	1,365	10,328	12,404
9	천안시	687,951	38,456	6,923	2,718	3,918	8,294	9,711
10	아산시	363,197	36,183	6,561	1,831	2,600	10,913	9,413
11	김포시	491,249	33,590	11,959	2,251	267	4,409	8,787
12	부평구	498,254	33,125	2,235	2,841	476	8,824	9,529
13	용인시	1,064,500	32,851	6,329	3,074	3,951	5,547	7,289
14	김해시	547,313	31,412	8,866	2,010	1,317	4,317	9,375
15	성남시	904,690	31,264	3,871	2,823	2,541	8,436	6,763
16	금천구	247,185	30,756	4,390	1,769	246	11,835	6,848
17	청주시	858,500	28,410	4,146	2,282	2,627	5,669	7,105
18	관악구	496,743	28,009	3,098	1,598	3,821	8,003	6,552
19	창원시	1,016,751	26,980	5,340	2,731	1,404	2,707	7,006
20	연수구	400,488	26,103	2,745	1,335	2,096	6,937	9,905

출처: 국가통계포털, 시군구별 외국인주민 현황([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0&tblId=TX\\_11025\\_A000\\_A&conn\\_path=I2](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0&tblId=TX_11025_A000_A&conn_path=I2))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현상을 의미한다. 대표적으로 이동력이 상대적으로 높고 대도시 업종인 서비스에 종사하는 외국국적동포는 내국인에 비해서도 훨씬 더 수도권/대도시 집중을 보이며, 경기도 및 인근의 산업공단과 공업지역은 외국인노동자의 최대 고용지로서 수도권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특수성이 있다. 즉 김해 외국인거리는 비수도권 지역에서 가장 오래되고 활성화된 다문화공간으로, 그 역사성과 지리적 변방성으로 인해 남동부 최대의 다문화공간이 된 이례적인 사례이다. 인접 대도시인 부산이나 대규모 산업도시인 울산, 창원의 변방으로 인식되는 김해가 외국인들의 중심지가 된 것은 김해의 역사성과 장소성이 교차하면서 빚어진 결과이다. 다문화적 기원을 가진 고도(古都)로서 스스로를 규정할 만큼 김해는 고용허가제 훨씬 이전부터 다문화적 역사도시로서 풍부한 문화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그림 9 참고). 이러한 독특한 발전경로는 김해 다문화공간의 특수성을 구성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본 장에서는 김해의 역사성과 장소성이 어떻게 다문화공간을 만들어 냈는지, 앞 장에서 논증한 다문화공간의 대표적인 특징(다중스케일적 구성과 다양성의 공존)을 토대로 하여 김해 다문화공간의 작동 양상을 시론적인 차원에서 탐색해 보고자 한다.

### 3.1. 역사적 다문화공간으로서 김해

김해의 구도심을 기준으로 남동쪽으로 펼쳐져 있는 김해평야는 원래 바다였다. 고고학자들은 그 바다를 ‘고(古)김해만’이라고 부르는데, 육지와 바다가 만나는 이러한 장소성은 선사시대부터 사람들을 김해로 끌어들이는 힘으로 작용했다.<sup>44</sup> 역사시대에 들어와서도 김해는 그 장소성으로 인해 더 넓은 세상과 바닷길로 연결되었다. 김해의 이러한 장소성은 금관가야의 성장 기반이 되었는데, 일각에서는 가야 엘리트의 매장지였던 김해 회현동 유적 D지구에서 확인된 외래(外來) 매장의례가 일어났던 한 여성의 무덤을 고대 결혼이주의 사례로 보기도 한다.<sup>45</sup> 한편, 외래 물품이 다량으로 부장된 대성동 고분군이나 고김해만의 항구로 드나들었던 한(漢) 군현(郡縣)과

44 국립김해박물관(2018a), 『“김해” 특별전 도록』, 김해: 국립김해박물관, pp. 141-142.

45 이양수(2016), 「김해 회현동 D지구 옹관묘에 대하여」, 『고고광장』 18, 부산대학교 고고학과.

왜(倭)의 선박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었던 봉황대 유적<sup>46</sup>도 김해의 이러한 장소성의 산물로 볼 수 있다.

김수로왕이 세웠던 금관가야가 신라에 병합된 이후 ‘금관소경’으로 불리다가 ‘김해소경’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김해’라는 지명이 처음으로 등장하였다. 이후 여러 왕조의 흥망성쇠 속에서 금관가야부터 형성된 일대 지역의 중심지 기능은 존속하여, 고려시대에는 ‘김해부’와 ‘금주’의 중심지, 그리고 조선시대에는 도호부의 중심지 역할을 했다.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해상에 인접한 입지로 인해 왜적의 약탈이 너무 빈번해지자 읍성이 조성되었다.<sup>47</sup> 또한 간척사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토사의 유입으로 항구의 기능을 상실한 고김해만이 ‘김해평야’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비옥한 농경지였던 김해평야는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수탈의 장소가 되었고, 일제는 식량 수탈과 함께 김해읍성의 철거를 자행하였다. 이렇게 철거된 읍성의 자리에 조성된 것이 동상시장과 그 일대의 구도심이다.<sup>48</sup>

해방 이후, 다음 절에서 자세히 소개할 경제발전과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한때 고김해만이었던 김해평야에는 ‘김해(골든루트)일반산단’과 같은 산업단지가 들어서게 되었다. 또한 동일한 흐름 속에서 김해의 구도심은 쇠락하였고, 그 후로 한때 읍성이 있던 자리에는 ‘김해 외국인거리’가 조성되었다. 한편, 역시 크게 보면 동일한 흐름 속에서, 하지만 상이한 추동의 원리에 따라, 가야의 중심지는 장소 마케팅의 대상이 되었고, 대성동 고분군, 봉황대 유적, 김수로왕릉, 김수로왕비릉 등은 ‘김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되었다.<sup>49</sup>

46 국립김해박물관(2018b), 『김해박물관 상설전시도록』, 김해: 국립김해박물관.

47 김광철(2018), 「김해, 고려시대 경상도 거점도시」, 『“김해” 특별전 도록』, 김해: 국립김해박물관, pp. 197-200.

48 두류문화연구원(2022), 『김해 동상동 793-3번지 유적』, 김해: 두류문화재단연구원.

49 김해시청(2024),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 기준 조정(안) 관련 주민 등 의견 청취 공고”, 김해시 공고 제2024-160호.

이 세 개의 장소에는 ‘바다와의 인접성’이라는 김해의 장소성이 동일하게 작용하였다. 하지만 인간과 자연의 영향이 각각 다른 방식으로 작용했던 결과로, 오늘날 서로 다른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다. 특히 한때는 모두가 중심지의 일부였지만 오늘날에는 김수로왕릉을 기준으로, 서쪽에는 ‘김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 동쪽에는 ‘김해 외국인거리’가 있다(그림 7 참조). 다른 지역의 경우, 일반적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우리’의 공간, 그리고 ‘외국인거리’는 ‘이방인’의 공간으로 인식될 뿐만 아니라, 근거리에 위치하는 경우가 드물다. 그러나 김해의 경우, ‘김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추진의 핵심 동력은 가야사 복원이었고, 오늘날 가야사 역사 마케팅에서 가장 활발히 등장하는 것은 ‘우리나라 최초의 다문화 부인’ 허황옥이다. 또한 앞서 살펴본 역사적 경로를 통해 김해에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과 외국인거리가 붙어 있다. 결국, 이러한 ‘인과적’이지는 않지만 ‘경로 의존적’인 과정을 통해 김해에서는 ‘과거의 다문화공간’이기도 한 ‘역사문화공간’과 ‘현재의 다문화공간’이 병존하고 있는데, 이러한 ‘병존’이 ‘마주침’을 지원하면서 김해에서는 과거와 현재가 어우러진 새로운 다문화공간이 만들어지고 있다.

### 3.2. 진행형인 다문화공간으로서 김해시 외국인거리

#### 3.2.1. 김해 다문화공간의 다중스케일적 구성

김해평야 내지는 국제공항으로 잘 알려진 김해는 전통적으로 농업도시였고 부산의 외곽지역으로 인식되어 왔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많은 다문화공간이라는 이미지와 얼핏 잘 부합하지 않는다. 그러나 김해는 1980년대 이후부터 공업지역으로 변모하기 시작해 2010년 이후로 제조업이 전체 생산액의 50%를 웃도는 공업도시가 되었다.<sup>50</sup> 김해의 공업도시로의 전환은 김

50 차철욱(2014).



해의 입지와 관련이 있다. 지역균형발전이 국토계획에 도입된 1982년대 이래로 대도시로의 공장 신설 및 증설이 억제되기 시작하면서 부산의 공장이 인접 지역인 김해로 대거 이전하기 시작했다.<sup>51</sup> 이와 함께 한국의 대표적인 제조업 지대였던 남동공업지역의 핵심 산업도시(울산, 창원 등)에 입지한 대기업의 하청 기업들이 인근의 김해에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김해는 인근 대도시의 하청기지 역할을 하는 중소공업도시로 성장하기 시작했다.

1990년대 말 IMF 구제금융과 신자유주의로의 전환은 탈산업화라는 전국적인 산업구조의 변화를 불러왔고, 임금 상승과 제조업 이윤율 저하로 공장들의 해외 이전(off-shoring)이 대대적으로 진행되면서 노동집약적 제조업을 중심으로 하는 남동공업지역은 직격탄을 맞았다. 대기업 중심의 수출의존적인 산업구조를 가진 한국은 국내 제조업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하청공장의 해외 이전을 최대한 방어해야 했는데, 그 하나의 대안이 바로 해외인력 수입이었다.

2004년부터 도입된 고용허가제는 이러한 산업구조의 지각 변동 속에서 탄생한 고육지책이었다.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과 뿌리산업 등 보호가 필요한 업종을 대상으로 외국 인력을 국가가 주도하여 매칭해 주는 프로그램이 바로 고용허가제였다. 이를 위해 정부는 16개(현재는 17개) 국가와 MOU를 맺고 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보증하는 한편 법무부와 산업인력공단, 각 지자체 고용센터 등 정부기관을 동원하여 외국인력 수급 및 관리를 위한 제반 법적, 제도적 시스템을 완비하였다. 즉 (뜻하지 않게) 한국 최초의 공식적인 이민 프로그램이 되어 버린 고용허가제는 사실 다문화주의와는 거리가 먼 인력수급 정책이었으며, 따라서 수급된 인력의 정착과 사회통합에 관

51 1982년부터 시작된 제2차 국토계획에 의해 부산은 서울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과 함께 성장 억제 및 관리 권역으로 지정되어 각종 성장 규제책이 적용되었다. 대표적인 것이 공장 신설 및 증설의 제한인데 이 시점 이후로 서울, 부산, 대구, 울산 등 대표적인 과밀/대도시 지역에는 공장 신설이 금지되었고 관내 공장도 지방 이전을 독려하는 각종 유인책이 시행되어 왔다.

한 문제는 도외시되었다. 한국의 다문화주의가 결혼이주여성과 그 가족 지원제도로 협소하게 왜곡된 배경에는 이처럼 외국인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자를 정착과 사회통합, 즉 ‘다문화’의 대상으로 간주하지 않았던 인식이 자리잡고 있다.

이렇게 시행된 고용허가제는 남동지역의 중소 공장 집적지로 탈바꿈한 김해에는 새로운 전환의 기회가 되었다.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이라는 대재앙이 21세기 대한민국의 대다수 지방을 휩쓸고 있는 상황에서<sup>52</sup> 대도시 사이에 낀 김해는 오히려 인구가 상승한 몇 안 되는 예외적인 지방도시가 되었다.<sup>53</sup> 2004년 고용허가제가 실시된 직후부터 김해시 외국인 인구는 증가하기 시작했고(그림 4) 국제결혼 이주여성도 함께 증가하면서 김해시는 도내 18개 시·군 중 외국인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변모하여 명실공히 ‘다문화도시’가 되었다.<sup>54</sup> 2010년 김해시 도심정비사업 이후 본격적으로 조성되기 시작한 김해시 외국인거리는 김해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 외국인들의 집결지로서 ‘경남의 이태원’<sup>55</sup>이라는 명성을 얻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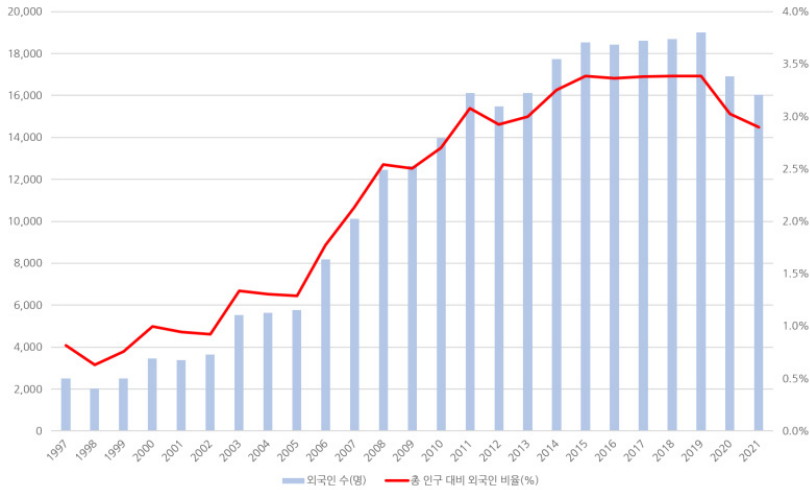
이처럼 김해 다문화공간은 지구적인 정치경제변화와 이동성의 증가라는 거시적이고 보편적인 조건 외에도 지역의 특수한 발전경로와 장소성이

52 2022년부터 행안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이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법안에 명기하기 시작했다. 인구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을 조사하여 공표하고 소멸지수를 매겨서 중장기적 대응을 수립하게 되었다(행정안전부, <https://www.mois.go.kr/frt/sub/a06/b06/populationDecline/screen.do>). 2024년 현재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절반이 넘는 121곳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된다. 소멸지수 1위는 상주시이며 광역시도 중에는 전남에 이어 경상북도가 2위에 올랐다. 부산도 광역지자체 중 최초로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되는 등 경상남북도는 인구소멸 위험이 가장 큰 지역이 되었다. 경남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측정한 인구활력지수를 보면 김해, 양산, 거제가 청년 활력지수가 가장 높은 곳으로 나타나 소멸 위험이 비교적 낮은 곳으로 분류되었다(『경남도민일보』, 2023.2.15.).

53 2024년 합계출산율이 0.77이라는 기록적인 최저치를 찍은 가운데, 지난 10년간 인구가 유일하게 증가한 24개 시군 중 김해시가 포함되었다(『브릿지경제』, 2024.3.11.).

54 『경남일보』, 2024.3.4.; 연합뉴스, 2022.12.28

55 『경남매일』, 2022.9.2.; 시빅뉴스, 2017.9.22.



자료: 법무부, 2023, 2022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그림 4] 김해시 체류자격 외국인 및 인구대비 외국인 비율 변화. 2006년부터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다가 2020년 이후 코로나19로 일시적으로 감소하였으나 2024년부터 고점을 회복하고 있다.

라는 우연성이 결합하여 탄생하였다.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인구 대이동을 의미하는 대이민의 물결<sup>56</sup>은 지구적인 스케일에서 확대된 소득 격차와 인구구조의 불균등(선진국의 인구감소와 저개발국의 인구증가), 기후위기로 촉발된 환경 및 산업생태계 붕괴, 취약성과 분쟁의 증가<sup>57</sup> 등 거시적이고 구조적인 요인에 의해 촉발된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고 볼 수 있다. 한국으로의 최근 이민 증가와 다문화적 전환은 크게 보면 이러한 거시적인 흐름에 포섭된다. 그러나 이러한 흐름이 한국 그리고 김해에 미친 영향은 해당 지역이 외부 지역과 맺는 관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대이민의 시대가 되었다고 해서 모든 지역이 다문화사회가 되는 것이 아니며 다문화적 수용은 로컬마다 다른 색채를 띠게 된다.

56 The Economist, 2023.5.28.

57 World Bank (2023), pp. 2-4.

고용허가제라는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국가 주도의 일사불란한 저숙련 외국인노동력 수급 정책이 등장한 것은 발전국가적 특성과 국제 노동분업 체제 속에서 아시아와 한국의 위치성, 세계경제 재구조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동한 결과이다. 김해 외국인거리는 김해라는 장소의 역사적 궤적과 입지, 국내 지역간 노동분업 체제, 교통 인프라,<sup>58</sup> 지역문화<sup>59</sup> 등이 복잡하게 결합하여 조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21세기 김해 다문화공간은 지구적이고 국가적이며 지방적인 스케일의 과정들이 교차하고 결합하여 빚어낸 창발적 현상이다.

### 3.2.2. 일상적 조우와 다양성의 공존

김해 외국인거리의 ‘다중스케일적 구성’이 다문화공간을 창출한 과정이라면, 이 공간의 존재 양식을 규정하는 힘은 바로 ‘다양성의 공존’, 특히 초국가적인 다양성이 특정 장소에 응집된 데서 나온다고 볼 수 있다. 다양성은 오늘날 글로벌 도시의 삶의 양식이자 이를 연구하는 방법론적 개념어가 되었다.<sup>60</sup>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는 전통적인 이민국가인 호주, 캐나다, 미국이나 선발 이민국가인 유럽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과거 제국의 수도나 식민지령이 오늘날 글로벌 도시로 변모한 사례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즉 시드니, 밴쿠버, LA, 런던 등과 같은 대표적인 사례지역은 식민주의

58 김해는 KTX와 SRT(진영역)뿐만 아니라 부산국제공항 및 부산역으로 연결되는 경전철이 관통하고 있다. 부산과 창원에 맞닿아 있어서 이들 대도시와 생활권이 통합되어 있다. 인구 55만 중소도시인 것을 감안하면 광역 교통인프라가 매우 잘 조성되어 있다.

59 가령 김해시는 다문화수용성이 다른 도시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나는데(『경남매일』, 2021.10.28.) 이는 외국인과의 높은 접촉빈도뿐만 아니라 타자에 대한 환대 및 이를 김해의 중요한 장소정체성으로 정립하려는 다각도의 정책 등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김해시 슬로건인 ‘가야 왕도’나 허황옥 전설을 장소 마케팅에 활용하는 것 등은 타자성과 비주류성을 적극적으로 장소정체성에 포함시킴으로써 김해를 차별화하는 전략이다[김지현 외(2021), 『김해시 다문화 로컬리티에 관한 고찰: 구별짓기에서 마주침의 공간으로』, 『로컬리티 인문학』 25,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원].

60 Ruth Fincher *et al.* (2019); Sofya Aptekar (2019).

와 이민자들에 의한 국가 건립의 역사를 거치면서 인종적 다양성이 애초부터 그 장소의 성립조건이 되었다. 이민자들의 에스닉 타운도 즐비하지만 그러한 예외공간 외에도 도시 전체가 인종 전시장을 방불케 할 만큼 다양성의 허브가 되었다. 이러한 곳에서는 타자와의 조우나 다양성의 공존이 일상이자 보편적 존재 양식이 될 수 있다.

반면 오랫동안 동질적인 인종 구성을 유지해 왔고 식민주의 시기에도 다문화적 혼종을 조계지 등 일부 장소에 국한하여 경험한 한반도에서 다문화적 공존은 21세기 현상이며, 여전히 (동질적인) 주류적 삶의 양식에 비하여 예외적인 상태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예외공간은 주류적 양식의 '정상성'을 비판적으로 성찰할 수 있는 거울이 될 뿐만 아니라 대안적 삶의 양식을 체험하고 상상하게 해 주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다문화적 공존이 모든 공간의 보편적 조건이 아닌 사회에서야말로 특정 장소에 배태된, 장소차별적으로 생산된 다문화공간의 특성과 작동 양상을 탐색하는 것이 정상성을 반추하기 위해서 더욱 필요하다.

초국가적 다양성의 공존은 이주민과의 마주침이 일상의 공간에서 반복되는 조건을 의미한다. 즉 다문화공간은 초국가적 마주침의 공간이라고 볼 수 있다. 김해시 외국인거리는 특정한 시공간에서 이러한 마주침이 조성되는 예외공간이다. 처음에는 주말마다 특정 거리 한 코너에서 상점 몇 곳으로 시작하였지만 점점 시공간적으로 확장하여 이제는 주말이 아닌 시간에도, 거리 전체로 다문화적 공존이 확산하여 보편과 예외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다. 따라서 이주민과 선주민의 의도하지 않은 조우가 시시때때로 일어나며 일상의 경관을 구성하게 되었다.

행안부의 2022년 지방자치단체별 외국인주민 현황을 살펴보면 김해시 외국인주민 수는 3만 1,412명(전국 226만 명)으로 전국에서 14위를 차지하고 있다(표 1).<sup>61</sup> 외국국적동포의 유입이 최근 두드러진 천안/아산을 제외하면

61 행안부 통계인 외국인주민은 법무부 통계인 체류자격 외국인 수와 집계 방식의 차이로

유일하게 비수도권 상위 지역이다. 동일 년도 법무부 통계자료에 의하면 김해시에는 79개의 국적 수가 존재하며, 체류자격 수도 25개로(전국 14위) 규모뿐만 아니라 질적 측면에서도 다양한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다.<sup>62</sup> 장기체류를 위해 등록한 외국인<sup>63</sup> 1만 7,911명 중 일반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비전문취업자(E-9)가 7,880명(44%)으로 최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그중 제조업 취업자 6,419명), 동포배우자(F1-09)와 결혼이민자가족(F1-05) 등 방문동거인이 11%, 영주권을 아직 취득하지 않은 국민배우자(F-6)가 10%를 차지해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21%(3,282명)로 두 번째로 큰 외국인 집단을 구성하고 있다(그림 5 우). 전국적으로는 등록외국인 118만 9,585명 중 비전문취업이 21%, 영주권자가 15%, 영주권 취득 전의 결혼이민자가 11%(그림 5 좌)인 것에 비해 김해시 외국인 구성에서 비전문취업 외국인노동자가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결혼이민자의 가족에게 발급하는 방문동거인의 비중도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국적별로는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한국계중국인, 중국, 캄보디아, 스리랑카 순으로 베트남과 우즈베키스탄이 다수를 차지하는 이례적인 양상을 보인다(그림 6).<sup>64</sup> 한국계중국인과 중국, 베트남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전국 분포에 비해 중국계 재외동포가 아닌 일반 외국인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다양한 국적과 체류자격, 에스닉 배경을 가진 외국인들이 외국인거리를 소비하면서 자연스럽게 외국인 간, 선주민과 이주민 간의 일상적 조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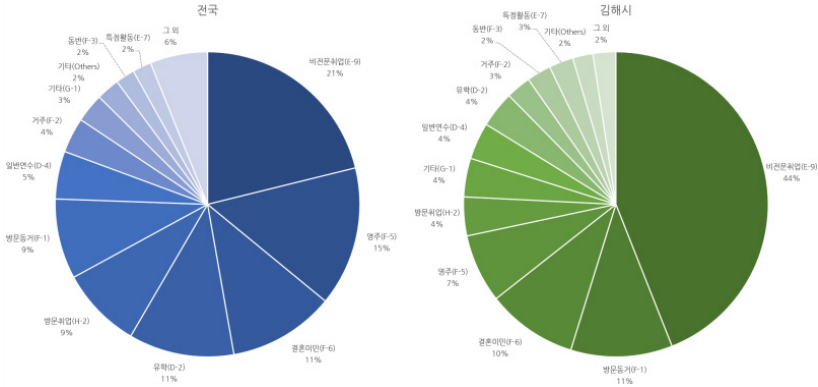
---

인해 수치가 보통 다르다. 전자는 지자체별로 집계하며 불법체류 등을 포함하여 관내 외국인 수를 전부 합한 수치이며 후자는 법무부가 발급한 비자에 근거한 숫자이므로 둘 간에 차이가 발생한다.

62 법무부(2022), “체류외국인 국적 및 체류자격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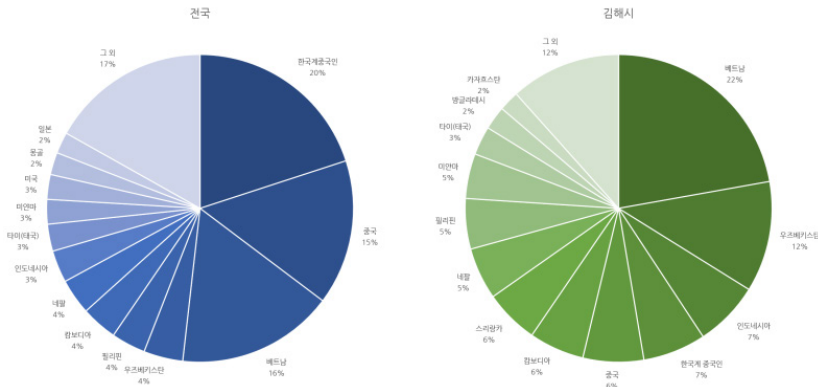
63 등록외국인이란 91일 이상 체류를 위해 관할지에 등록한 외국인으로, 별도의 거소신고를 해야 하는 외국국적동포(전국 502,451명으로 전체 외국인 중 22.4%) 및 단기체류자는 제외된 숫자이다.

64 김해에는 고려인 마을이 있으며 이들 중 상당수가 우즈베키스탄 국적으로 분류되어 우즈베키스탄 출신 이주민 비율이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자료: 법무부(2023; 2022),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그림 5] 체류자격별 등록외국인 구성(좌: 전국, 우: 김해시)



자료: 법무부(2023; 2022),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그림 6] 국적별 등록외국인 구성(좌: 전국, 우: 김해시)

증가하게 되었다. 시장과 마트, 음식점과 같은 소비공간뿐만 아니라 박물관과 학교, 유적지, 대중교통 등 다양한 일상의 문화적 장에서 마주침과 섞임은 김해시민에게 더 이상 낯선 일이 아니게 되었다.

단기체류형인 비전문취업 외국인노동자<sup>65</sup> 외에도 결혼이민자와 고려

65 1회 입국에 최장 4년 10개월 체류가 가능한 E-9 비자는 사업주의 추천서 외국인노동자







출처: 저자촬영(2023.10.)

[그림 8] 김해합성초등학교 전경. 육상대회 우승자의 외국 이름과 (좌) 영어 안내문이 부착된 출입문(우).

도심 인프라를 누린다는 점(그림 7)은 김해시 다문화공간의 두드러진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전자의 경우 김해 외국인거리에 인접한 김해합성초등학교 학생의 57%가 다문화 배경의 학생이라는 점에서도 확연히 드러난다(그림 8). 1904년에 개교하여 12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김해합성초의 다문화배경 학생 중 85%는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라는 점<sup>66</sup>에서 이 학교는 그 자체로 ‘우리 안의 메가아시아’를 구현하고 있다. 후자의 경우는 다른 도시의 다문화공간과도 차별화된 김해의 역사지리적 특수성을 더욱 잘 보여준다. 김해의 구도심이자 역사문화보존 지역으로서 여전히 김해의 핵심 상업기능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가야 왕도 김해의 역사적 정체성을 상징하는 도심부에 외국인거리가 조성됨으로써 김해의 역사적 다문화성이 21세기에 새롭게 진화하고 있는 듯한 경관을 창출하고 있다(그림 9). 외국인거리의 핵심

66 경상남도교육청(2024), “아이좋아 경남교육”, <https://magazine.gne.go.kr/magazine/na/ntt/selectNttInfo.do?mi=12287&nttSn=2535998> (접속일: 2024.7.17.)

출처: 저자촬영(2024.7.)

[그림 9] 가야 왕도와 다문화공간의 접점, 웰컴로 42길. “고대 가야의 정신과 현대 김해의 문화 다양성은 환대와 환영의 열린 가치를 지향하며 (...) 42는 가야 건국의 해인 AD 42년을 뜻하며 우리말 “사이”의 뜻도 담아 (...)”라는 안내문이 써있다.



인 동상시장은 왕릉 입구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외국인과 내국인 방문객의 동선이 겹칠 수밖에 없으며 이에 따라 김해의 상징적 역사문화공간인 김수로왕릉을 방문하는 외국인들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또한 김해 도심부를 관통하여 부산 국제공항과 부산역으로 연결되는 경전철은 인근 지역의 외국인들을 김해로 불러 모으는 데 중요한 교통인프라로 작동한다. 주말이면 외국인들로 가득 찬 열차 칸은 이제 더 이상 낯선 광경이 아니게 되었다.

이처럼 김해 다문화공간은 그 역사적, 지리적 특수성으로 인해 독특한 경관을 형성하게 되었다. 그 결과 김해시민들은 다양한 일상의 장에서 차이를 마주하고 그것을 어떻게든 협상하는 삶의 양식을 실천하게 되었으며 김해의 역사적 정체성 구성에 이러한 차이와 다양성의 공존은 중요한 서사로 자리 잡게 되었다. 여성가족부가 3년마다 실시하는 ‘국민 다문화수용성조사’에 조응하여 경남매일에서 김해시민을 대상으로 한 유사한 설문조사(2021년)에 의하면 김해시민 85%는 “외국 이주민 이웃으로 살아가는 것이 싫지 않다”고 응답했다.<sup>67</sup> 특히 동상동과 내외동 등 외국인거리 인접 지역

67 여성가족부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2021년 10월 19~26일 사이에 김해 시내 20세부터 60

주민일수록 다문화수용성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한국인으로 인정받기 위한 필수조건으로서 혈통적 요건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 그렇지 않다고 답한 비율이 70% 이상에 달해 정치제도와 법 존중 등 시민으로서의 태도 함양이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더 중요한 조건임을 드러냈다. 이러한 수치는 2021년 전국 다문화수용성 조사와는 사뭇 다른 결과이다. 청소년 다문화수용성 지수는 소폭 상승했지만 성인의 점수는 2018년보다 낮아졌으며, 2015년 조사에 의하면 외국인노동자와 이민자를 이웃으로 삼고 싶지 않다는 국민의 비율이 32%에 달하는 등(스웨덴 3.5%) 한국의 다문화수용성은 서구 이민국가에 비해 높지 않은 수준임을 짐작케 한다.<sup>68</sup> 주목할 만한 점은 코로나 직후 실시된 2021년 조사에서는 이전 조사에 비해 길거리 등에서 이주민 목격 빈도가 낮을수록(국민의 68%가 전혀 마주친 적 없음) 다문화수용성이 확연히 낮아졌다는 점이다. 김해의 경우 전혀 마주친 적 없음 비율이 6.6%에 불과했으며 매우 자주 본다 17.3%, 자주 본다 36%, 가끔 본다 32.6% 등 대부분의 시민이 일상적으로 이주민과 조우하고 있으며 이는 높은 이주민 긍정 수치(85%)와 거의 일치했다. 마찬가지로 김해시에서 이주민을 거의 또는 전혀 본 적 없다는 비율(15.2%)과 이주민을 이웃으로 삼기 싫다는 의견(14.6%)은 거의 수치가 일치했다.

#### 4. 맺음말

본 논문은 이주의 시대를 맞이하여 이주민들에 의한 탈영토적인 모빌리티를 포착하고 다양성이 공존하는 공간의 등장에 주목하면서 김해시 외국인거리를 사례로 하여 시론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아시아 지

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면담 140명, 온라인 10명) 동일한 설문 문항을 조사함(『경남매일』, 2021.10.28.).

68 여성가족부(2015; 2018; 2021),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

역연구에서 새로운 관점과 방법론을 제안하고 있는 ‘메가아시아’ 개념과 공간적 관점에서 이주와 다문화현상을 설명하려는 ‘다문화공간’ 개념을 접목하여 양 개념의 이론적, 경험적 확장을 탐색했다. 또한 다문화적 현상을 공간적 렌즈로 재사유하면서 초국가적 이주를 통해 생성되는 다문화공간의 다중스케일적 구성을 주창한 최병두의 논의를 근거로 하여 ‘일상적 마주침을 통한 다양성의 공존’이라는 다문화공간의 또 다른 특징을 사례연구를 통해 추가함으로써 이 개념의 확장적 적용을 모색했다. 시각의 ‘춤-아웃’을 통해 아시아 여러 지역 간의 간접적 연결성을 포착했던 기존 메가아시아 연구의 전략을 바꾸어 ‘춤-인’을 한 결과, 김해시의 독특한 역사·지리적 맥락으로 인해 발생한 다양한 국적의 아시아인이 일상적으로 마주치고, 그 과정에서 아시아 전체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성 공존의 현상들이 총체적으로 목격되는 현장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렇듯 ‘우리 안의 메가아시아’를 포착하고 분석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개념적 자원으로서는 다문화공간의 유용성을 검증할 수 있었다.

지구화 시대 지구적 정치·경제 체제의 변화와 한국의 지경·지정학적 위치성은 후발이민국가로서 한국이 대이민의 시대적 흐름에 편입하는 거시적 조건을 조성했다. 그러나 김해 다문화공간은 이러한 보편적 과정뿐만 아니라 김해라는 장소가 지닌 역사성과 지리적 위치성, 다른 장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구체적 특징이 구성되었다. 이는 지구지방적 다중스케일적 과정을 통해 특정한 다문화공간이 생산되는 보편적인 사례를 잘 보여준다. 그뿐만 아니라, 김해 다문화공간은 차별과 배제적 도시화의 결과로 형성된 서구의 에스닉 엔클레이브나 다른 아시아의 주말 엔클레이브 등과는 달리 다양한 국적, 인종, 체류자격을 지닌 이주민들이 공존하면서 경제·문화적으로도 활기찬 공간을 생성해 내고 있으며 이는 김해시의 전반적인 지역발전과 궤를 같이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글로벌 대도시도 아니고 한국 내에서도 변방의 위치성을 지닌 김해가 이토록 활기찬 다문화공간을 조성한 데에는 지자체의 노력뿐만 아니라 김해가 가진 독특한 역사적 맥락, 장소 자산,

입지적 특징, 사회경제적 구조 등이 창발적으로 결합한 결과이다. 상대적으로 높은 김해시민의 다문화수용성이 보여주듯이 김해시는 이주민 간의, 선주민과 이주민 간의 일상적 마주침을 통해 다문화적 공존을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마주침을 매개하는 다문화공간은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에 긍정적인 촉매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 참고문헌

- 공윤경(2013), 「다문화공간에 대한 이중적 시선과 차별화」, 『한국민족문화』 48.
- 국립김해박물관(2018a), 『“김해” 특별전 도록』, 김해: 국립김해박물관.
- 국립김해박물관(2018b), 『김해박물관 상설전시도록』, 김해: 국립김해박물관.
- 권은(2011), 「다문화 공간에는 누가 사는가: 다문화공간을 둘러싼 갈등」, 정병호·송도영 편, 『한국의 다문화 공간: 우리 사회 다문화 이주민들의 삶의 공간을 찾아서』, 서울: 현암사, pp. 217-240.
- 김광철(2018), 「김해, 고려시대 경상도 거점도시」, 김해박물관 편, 『“김해” 특별전 도록』, 김해: 국립김해박물관.
- 김윤영(2019), 「다양한 주체자들에 의해 만들어지는 다문화공간의 정체성과 그 담론」, 『공간과 사회』 29(4), 한국공간환경학회.
- 김지현·김그린·정현주(2021), 「김해시 다문화 로컬리티에 관한 고찰-구별짓기에서 마주침의 공간으로」, 『로컬리티 인문학』 25,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 도린 매시 저(2015), 정현주 역, 『공간, 장소, 젠더』,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도린 매시 저(2016), 박경환 외 역, 『공간을 위하여』, 서울: 심산.
- 두류문화연구원(2022), 『김해 동상동 793-3번지』 유적, 김해: 두류문화재단연구원.
- 박배균(2009), 「초국가적 이주와 정착에 대한 공간적 접근」,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5(5), 한국지역지리학회.
- 샘 밀러 저(2023), 최정숙 역, 『이주하는 인류』, 서울: 미래의 창.
- 신범식(2021), 「부상하는 메가아시아: 역사와 개념」, 『아시아리뷰』 11(2),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 신범식(2023), 「메가아시아의 부상과 아시아의 미래」, 『메가아시아 연구 입문』, 서울: 진인진, pp. 375-404.
- 신범식·유성희 편저, 2023, 『메가아시아 연구 입문』, 서울: 진인진.
- 심우진·허정원·박선영(2023), 「데이터로 보는 아시아의 지역들」, 『메가아시아 연구 입문』, 서울: 진인진, pp. 357-374.

- 유성희(2022), 「'세계체계관점'과의 비교를 통해 바라본 메가아시아 개념의 특징: 이론적 체계와 방법론적 도구의 공존」, 『아시아리뷰』 12(2),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 윤인진(2008),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전개와 특성-국가와 시민사회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42(2), 한국사회학회.
- 이양수(2016), 「김해 회현동 D지구 웅관묘에 대하여」, 『고고광장』 18, 부산대학교 고고학과.
- 이영민·이은하·이화용(2013), 「중국 조선족의 글로벌 이주 네트워크와 연변지역의 사회-공간적 변화」,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6(3), 한국도시지리학회.
- 정병호·송도영 편(2011), 『한국의 다문화 공간: 우리 사회 다문화 이주민들의 삶의 공간을 찾아서』, 서울: 현암사.
- 정현주(2010), 「대학로 '리틀마닐라' 읽기: 초국가적 공간의 성격 규명을 위한 탐색」,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6(3), 한국지역지리학회.
- 정현주(2020), 「한국 이주정책에서 이주민의 시민적 계층화와 공간분화: 민족과 젠더에 따른 외국인노동자 체류자격 차등화를 중심으로」, 『한국지리학회지』 16(3), 한국지리학회.
- 차철욱(2014), 「김해 이주민 여가공간의 형성과 로컬리티의 재구성: 음식점을 중심으로」, 『로컬리티 인문학』 12,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 최병두(2009), 「다문화공간과 지구지방적 윤리」,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5(5), 한국지역지리학회.
- 최병두(2017), 「다문화사회의 윤리적 개념과 공간」, 『한국지역지리학회지』, 23(4), 한국지역지리학회.
- 최병두·임석희·안영진·박배균(2011), 『지구·지방화와 다문화 공간』, 서울: 푸른길.
- 허권(2021), 「안산시 외국인 정책 및 다문화 공간 방향성에 대한 비판적 고찰」, 『공간과 사회』, 31(3), 한국공간환경학회.
- Aptekar, S. (2019), Super-diversity as a methodological lens: re-centring power and inequality, *Ethnic and Racial Studies* 42(1).
- Biehl, K. S. (2020), "A dwelling lens: migration, diversity and boundary making in an Istanbul neighbourhood", *Ethnic and Racial Studies* 43(12).
- Brown, C. and L. Liebovitch (2010), *Fractal Analysis* (Quantitative Applications in the Social Sciences Book 165), London: Sage.
- Chan, Y. W. (2020), "Asian perspectives of migration: a commentary", *Comparative Migration Studies* 8(33).
- Chung, E. A. (2020), "Creating hierarchies of noncitizens: race, gender, and visa categories in South Korea", *Journal of Ethnic and Migration Studies* 46(12).
- Entrikin, J. N. (2004), "Democratic place-making and multiculturalism", *Geografiska Annaler, Series B. Human Geography*, 84(1).
- Fincher, R. K, Iveson, H, Leitner, and V. Preston (2019), *Everyday Equalities: Making Multicultures in Settler Colonial Cities*, Minnesota: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Jackson, Peter, P. Crang, and C. Dwyer (2004), "The spaces of transnationality", in Crang, P. C. Dwyer, C. and P. Jackson (Eds.), *Transnational Spaces*, London: Routledge, pp. 1-23.
- Ko, I. (2023), "Exploring the Historical Foundations of Korea's Connections with South Asia Using the Framework of "Mega-Asia"", *Inmun Nonchong* 80(3), Seoul National University Institute of Humanities.
- Kymlicka, W. (1995), *Multicultural Citizenship: A Liberal Theory of Minority Right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Maseey, Doreen (2005), *For Space*, London: Sage.
- Massey, Doreen (1994), *Space, Place and Gender*, Minnesota: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Parrenas, R. S. (2015), *Servants of Globalization: Migration and Domestic Work*, 2nd edition,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 Parrenas, R. S., K. Kantachote, and R. Silvey (2021), "Soft violence: migrant domestic worker precarity and the management of unfree labour in Singapore", *Journal of Ethnic and Migration Studies* 47(20).
- Žižek, S. (1997), "Multiculturalism, or, the cultural logic of multinational capitalism", *New Left Review* 225.

## 신문기사 및 기타자료

- 경상남도교육청(2024), 아이좋아 경남교육(김해합성초등학교 한국어학급 김영미 선생님), <https://magazine.gne.go.kr/magazine/na/ntt/selectNttInfo.do?mi=12287&nttSn=2535998>(접속일: 2024.7.1.).
- 고용노동부(2024), 고용허가제 홈페이지, <https://www.eps.go.kr/eo/EmployPerSystem.eo>(접속일: 2024.6.1.).
-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2024), [https://www.ppuritech.re.kr/page/introduce\\_greeting.php](https://www.ppuritech.re.kr/page/introduce_greeting.php) (접속일: 2024.6.1.).
- 김해시청(2024),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 기준 조정(안) 관련 주민 등 의견 청취 공고", 김해시 공고 제2024-160호.
- 법무부(2022), "체류외국인 국적 및 체류자격별 현황".
- 여성가족부(2015, 2018, 2021),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
- 연합뉴스, 2022.12.28. 경남서 외국인 가장 많은 김해...100가구 중 2가구는 다문화 가정. <https://www.yna.co.kr/view/AKR20221228116600052>(접속일: 2024.7.1.).
- 통계청(2023),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
- 행정안전부(2024), 인구감소지역 지정, <https://www.mois.go.kr/frt/sub/a06/b06/populationDecline/screen.do>(접속일: 2024.7.1.).
- 경남도민일보, 2023.2.15. 도심조차 소멸 위기...경남 안전한 읍면동 9곳뿐 <https://www>

- 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817667
- 경남매일, 2021.10.28. 김해 시민 85.1% “외국 이주민 이웃으로 살아가는 것 싫지 않아.”  
<http://www.gn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482441>
- 경남매일, 2022.9.29. ‘경남의 이태원’ 김해 외국인 거리서 낯선 행복 느끼다. <http://www.gn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504797>
- 경남일보, 2024.3.4. 김해 거주 외국인 ‘더 살기 좋아진다.’ <https://www.g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47230>
- 브릿지경제, 2024.3.18. 지방도시 인구 소멸 위기 속에도 인구 증가한 지역 있다…어디?  
<http://m.viva100.com/view.php?key=20240318010005475>
- 시빅뉴스, 2017.9.2. “한국이야, 외국이야?”…김해의 이태원 ‘동상동 외국인거리.’ <http://www.civic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444>
- IOM (2022) *Asia-Pacific Migration Data Report*.
- The Economist, 2023.5.28., “A new wave of mass migration has begun.” <https://www.economist.com/finance-and-economics/2023/05/28/a-new-wave-of-mass-migration-has-begun>
- World Bank (2023), *Migrants, Refugees, and Societies* (World Development Report).

원고 접수일: 2024년 7월 22일, 심사완료일: 2024년 7월 31일, 게재 확정일: 2024년 8월 7일



## ABSTRACT

# Rethinking Multicultural Space from a Mega-Asian Perspective

Jung, Hyunjoo\*

Ko, Ilhong\*\*

Shim, Woojin\*\*\*

Using Gimhae City's Foreigner  
Street as an Example

Kim, Jungseob\*\*\*\*

This paper combines the concepts of “Mega-Asia” and “multicultural space” as an analytical tool to understand the mobility of immigrants and the space where diversity coexists, and explores the theoretical and empirical expansion of both concepts. Mega-Asia is a concept that seeks to overcome the pitfalls of regional territorialism and to understand Asia expansively as networks and relationships in a post-colonial context. It involves both macroscopic and microscopic approaches, but the latter has not been properly explored compared to the former. Multicultural space, which seeks to explain transnational migration and multicultural settlement by adopting a spatial approach, is useful as a concept that can help observe the “Mega-Asia within Korea.” By examining the multi-scale composition of this space and the coexistence of diversity using the “Foreigner Street” in Gimhae City

---

\*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Environmental Plann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First Author

\*\* Assistant Professor, Asia Center, Seoul National University, Corresponding Author

\*\*\* Research Professor, Asia Center, Seoul National University

\*\*\*\* Master Candidate, Department of Environmental Plann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as an example, this paper presents a theoretical analysis of the production and operation of multicultural space. Multicultural space is created in an emergent way, as global processes combine with local history and place; this is clearly revealed through the development trajectory and composition of Gimhae City's Foreigner Street. These multicultural spaces have great implications for Korean society, which now finds itself at the crossroads of a multicultural transition, in that it seeks to coexist with diversity while mediating daily encounters between different groups.

**Keywords** Multicultural Space, Mega-Asia, Gimhae, Migration, Multi-scaler Approach, Coexistence of Diversity